

근본주의 성경 신자

성경말씀: 시11:1-7

지난 몇 주, 성경 신자 시리즈, 주의 만찬, 침례, 성경 신자들의 믿는 바와 실행, 피 흘린 발자취(교회사)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현시대 성경 신자들이 지켜야 할 가치들
시대가 변하면서 단어들의 뜻이 변한다. 성도의 호칭: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 그리스도인, 카톨릭, 프로테스탄트, baptist,

요즘은 성경 신자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와전될 수 있다. 미국에 성경적인 침례교회들이 생겨나는 가운데 1850년도 이후에 몇 가지 특이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성경 오류 새 성경 필요, 진화론,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이단 등장
다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니 성경 신자들이 당혹스러워 함
예를 들어 목사들을 배출하기 위해 만든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 대학 등이 현대주의 사조에 물들어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기 시작함. 현 시대에는 가장 큰 자유주의 신학교가 되고 말.

그래서 이 같은 현대주의 사조에 대항하기 위해 1878-1897년까지 나이에가라 성경 사경회가 열림
1910년에 ‘Fundamentals’라고 하는 책들이 R. A 토레이 등에 의해 편찬됨. 처음에 12권, 나중에 4권, 근본적인 다섯 가지 믿음을 옹호하기 위한 90개의 글, 캘리포니아의 사업가인 스투어트 형제 두 사람이 무명으로 자금을 대서 글을 모으고 책을 인쇄해서 미국의 목사, 선교사, 신학교 교수, 주일학교 교장 등에게 25만 세트(날권으로 300만 권)를 보냄,

책 이름이 ‘Fundamentals’이므로 이 책의 믿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Fundamentalist(근본주의자)가 됨.

Fundamental(펀더멘탈)이라는 말은 요즘 경제 용어로도 매우 많이 사용됨

메일경제 용어 사전: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경상수지 등의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말한다. 펀더멘탈은 국제 경제 안정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들이며, 펀더멘탈의 균형이 붕괴되면 각 국가의 통화가치의 변동이 발생하고 세계 경제는 안정을 잃게 된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펀더멘탈을 강화하려 한다.

사람에게는 기초 체력과 건강: 옷, 자동차, 집, 돈 아무리 많아도 기초체력이 없으면 소용없음(엔진)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도 근본적인 것이 있으며 이것들을 펀더멘탈이라고 한다.

펀더멘탈 운동이 시작될 때 그들이 주장한 것은 다섯 가지 펀더멘탈이다.

1. 성경의 축자 영감, 2.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과 신성(하나님 되심), 3.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4. 그리스도의 부활, 5. 그리스도의 재림 <근본주의 성경 신자>

다윗의 시: 시편 11편

1절: 사악한 자들의 위협,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그의 친구들은 “이제 우리 산으로 도망해라. 거기서는 살 데가 없다.”라고 충고한다.

2절: 사악한 자들이 악한 도구로 몰래 공격하려 함, 차별 금지법, 동성애, 오직 예수 반대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위치가 점점 위협을 받음.

3절: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사악한 자들이 지금 기독교라는 건물의 기초를 부수고 있다. 기독교라는 아파트 건물이 붕괴되려고 하는데 대부분 자기 집만 걱정한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건물의 기초를 지키려고 이 자리에 있다. Fundamental을 지켜야 한다.

4절: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신다. 눈과 눈꺼풀은 같은 말을 두 번 쓴 것이다. 우리를 단련하신다. 여기에서 이겨야 한다.

5절: 주님은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나누신다.

6절: 사악한 자들에게 보복하신다.

7절: 의로운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단련을 통과하려면 기초들을 지켜야 한다.

기독교의 다섯 가지 Fundamental 기초

1. 성경의 축자 영감(딤후3:16-17)

영감: 성경의 모든 단어에 하나님이 숨이 들어 있다. 살아 있는 말씀이다(마4:4).

성경은 바울, 베드로, 야고보의 말이 아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성을 통해 오지 않았다(벧후1:20-21). 그분의 계시이다.

객관적인 기록으로 주셨다.

보존: 지금 이 시간 완전한 성경이 우리 손에 있어야 기독교가 유지된다(잠30:5-6). “없음” No!

2.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과 신성(하나님 되심)

현대주의자들의 주장: 예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갔다. No!

성경의 예수님은 하나님이다(요일5:20).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 참 사람

이 일을 위해 남자 없이 태어나는 처녀 탄생을 있어야 하므로 처녀 탄생은 기독교의 기초이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다(시51:5). 나서도 죄인이다(요일1:8).

롬5:12, 한 사람에게 의해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예수님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으면 그분도 죄인이다. 수태하는 순간 여자에게서는 단 한 방울의

피도 옮겨지지 않는다. 아이에게서 피가 형성된다.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행20:28), 그분이

처녀에게서 나지 않았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것이다.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3.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히2:9)

죄의 삯은 사망이다(창2:17; 롬6:23).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다(계20:14).

죄 많은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 사53:6; 벧전2:24; 요일2: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대신 속죄 희생물’이 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다.

십자가에서 죄 덩어리가 되셔서 아버지의 진노를 모두 담당하셨다(고후5:21).

4. 그리스도의 부활(고전15:3-4)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만에 살과 뼈를 가진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하여 무덤에서 나오셨다.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이 점이 다르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는 모두

죽어서 다 썩어 없어졌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 후 부활을 전하는 복음이다(고전 15장).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롬1:16).

그분의 부활이 없으면 그분의 신성이 무너진다.

그분의 부활이 없으면 대속의 죽음이 무너진다.

그분의 부활은 아버지께서 그분의 죽음에 만족하셨음을 보여 주는 표적이다.

그분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전15:17-18).

그분의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롬10:9).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가 있으나 우리는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5. 그리스도의 재림(살전4:16-17)

그리스도의 재림은 문자적으로 몸을 입고 오시는 실제적 재림이다.

구약성경: 재림이 초림보다 20배나 많다. 신약성경(259장)에는 무려 300번이나 재림이 나와 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으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거짓이 되고 만다. 재림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이다. 기독교의 Fundamental이다.

결론

기초들이 무너지려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 성경의 영감과 보존, 예수님의 신성, 대신 속죄, 부활, 재림,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으로 기독교의 기초들을 지켰다.

우리도 우리 세대를 섬기다가 간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3)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나니 그분의 얼굴은 곧바른 자를 보시느니라 (7).